

문서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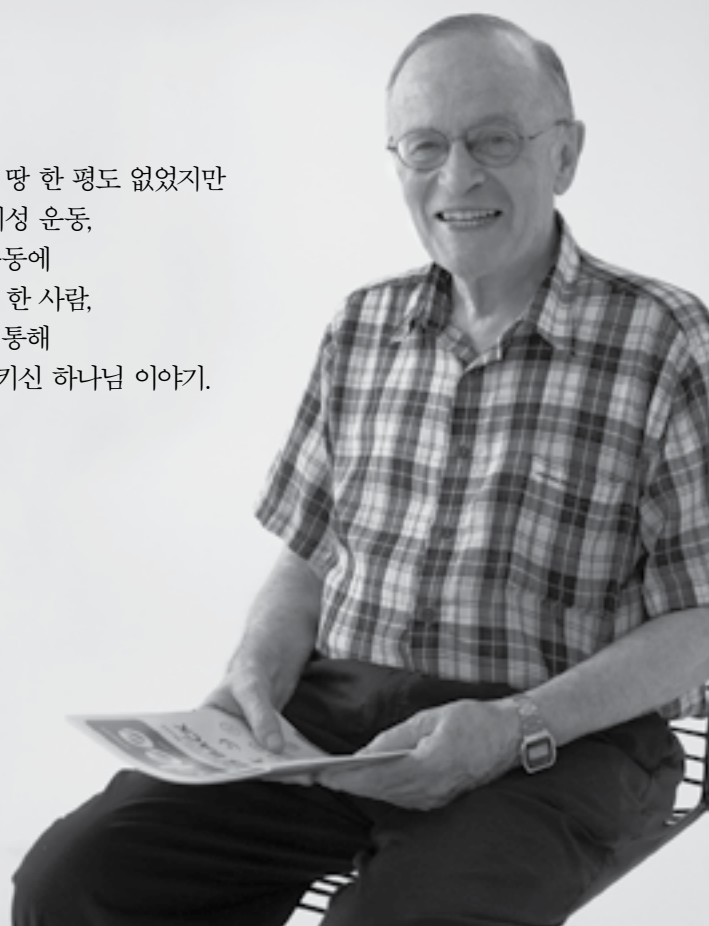
웨슬리 웬트워스

웨슬리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소명, 학문, 그리고 교육 이야기



손봉호 외 | 양장 292면 | 16,000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었지만
문서 운동과 기독교 지성 운동,
기독교 학교 교육 운동에
묵묵히 씨앗을 뿌린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
조용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야기.



“웨슬리는 한국 기독교 지식인들의 멘토요 대부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국 학자들을
많이 알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외국인은 없다.
어떻게 그는 한국 복음주의 지성계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었는가?
그의 설득력은 말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삶에 있다.”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마음 너 영혼의 신 심리학과 신앙, 뇌과학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
말콤 지브스 | 홍종락 옮김 | 302면 | 15,000원

신약의 모든 기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톨 라이트 | 백지윤 옮김 | 216면 | 12,000원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재영 | 226면 | 13,000원

법 없어도 사는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란 것으로 칭찬이다. 이 말은 법으로 강제해야 비로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축하고, 나아가서 법이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암시한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율성(自律性)에 있다는 것이 서양 인본주의의 기본사상이다. 짐승은 본능, 충동, 공포 등에 의하여 행동하므로 타율적이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거나 무식한 사람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감정적인 것은 모두 수동적이므로 타율적이라 생각이 서양사상에 스며 있고 그 유산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어떤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이성 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따라 행동해야 자율적이라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모든 인간과 사

회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자율성의 정도가 곧 발전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충분히 성숙한 인간은 법의 강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가능한 사회는 발전된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나 강제력을 가진 규정이 전혀 없는 사회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홉스(Thomas Hobbes)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될 것이고 “만인이 만인과 전쟁”을 일으킨다.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 약육강식의 상태가 벌어져서 인류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서양의 인본주의나 홉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법을 없애도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착해도 질서를 위한 규칙은 불가피하다. 사거리에서 모든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면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자연이 아니라 점점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관계는 점점 더 이해관계, 즉 경쟁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어떤 사회도 종교, 전통, 예의, 윤리 같은 것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이 늘어날 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며 그들의 역할과 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법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있는 양심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롬 2:14)으로 이해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자율성”(autonomy)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는 이런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타율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인에 비해서 4배나 소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소송이 3심에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대법원이 되었다.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많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도 법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 소송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교단 재판부도 자주 모임며 개교회가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교회가 순수하고 순결했을 때는 거의 없었던 현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와 교계에 사람들이 탐하는 세속적인 이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회가 물량적으로 커지자 돈, 명예, 지위, 권력 같은 하급가치가 생겨나서 그런 것을 탐하는 불순분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교인들이 유혹을 받아 불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소수였고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툼 이유가 없었다. 소송이 늘어나고 교회 정관이 제정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법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다. 사실 법이 존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과 함께 법도 자살지향적이다. 즉 스스로가 없어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법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했다. 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개인의 습관, 사회의 관습으로 정착되면 법은 강제적이 될 이유가 없어지고 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마5:17)이라 했다. 바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했다.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화된다면 개교회가 별도의 정관을 만들 이유도 없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법률의 수가 줄어들고 소송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중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OCTOBER · 2015

WORLDVIEW

2015년 10월호 WORLDVIEW 통권 184호



표지인물 Gwendolyn Dewey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틀을 바꿀 스위치를 켜라_Gwendolyn Dewey

- SPECIAL**
- 02 대표주관 법 없어도 사는 사람_손봉호
 - 16 기획칼럼 왜 “모범정관”인가?_백중국
 - 21 기획칼럼 교회의 정관 제정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_조영길
 - 26 기획칼럼 교회의 정관, 그 효용성과 한계에 대하여_강문대
 - 30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32 메디컬칼럼 Cure & Care 상처 치유_최현일

- CULTURE**
- 36 땀복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 58 편집# 잊혀진 말들, 그리고
 - 60 유머 생각이 안 나서_손봉호

- BOOK REVIEW**
- 38 서평 그리스도와 법_김용훈
 - 42 서평 인생의 사계절과 노년의 의미_김민철
 - 47 서평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는다면_김민정

- NEWS**
- 56 사무국 뉴스
 - 51 10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신효영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흔들

틀을 바꿀 스위치를 켜라

📍 인터뷰_김선일 (웨신대 교수), 정리_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바키대학교(Bakke Graduate University),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의 신학'과 도시 사역 리더십을 전문으로 가르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시애틀에 소재한 대학이다. 바키대학교의 부총장이자 변혁적 리더십 사역디렉터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그웬 듀이(Gwendolyn Dewey)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선일 교수가 만났다.

김선일 교수님(이하 김):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일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는 영성이나 신학과는 별개로 취급받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성숙의 이원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합니다. 르완다 인종 청소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자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계관의 문제일까요? 아마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세계관'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Gwendolyn Dewey(이하 Gwen): 목회자와 교회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삶을 조망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배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절감이 우리 대학 일의 신학 과정을 만들어 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강의를 들어도 일의 신학 세미나에 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Mr. Don(이하 Don, Gwen의 남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23번 정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계관 아닐까요.



김: 바키(Bakke) 대학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Don: 바키는 가족 이름(성)입니다. 바키 가족에는 형제 셋과 자매 한 명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레이몬드 바키(Raymond Bakke, 이하 레이)라고 매우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레이는 시카고에서 탁월한 도시 선교 사역을 해 왔고, 기독교공동체개발협회(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는 도시로 파송 받은 '사도'라 불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가 세운 국제 도시사역연맹(International Urban Associates:IUA)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IUA가 결국 지금의 바키대학교를 이루는 모체가 되었

습니다. IUA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레이의 동생인 데니스 바키(Dennis Bakke 이하 데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 사역의 후원자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 IUA에서는 세계 6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신학교나 대학교의 교수들이 정부 관료나 비즈니스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속사회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의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나 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센터는 유럽에 하나 아프리카에 하나, 그리고 중동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센터는 특별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북미 지역에 하나, 남미에 하나, 정확히 홍콩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 그러한 센터와 프로그램들이 설립된 게 언제였습니까?

Don: 1987년에서 1988년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그 단체에 동참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제가 데니스를 만나게 된 배경에는 막내 동생인 로웰 바키(Lowell Bakke)가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웰은 목회를 하느라 바빠서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협력 기관을 만들었고, 레이가 학장으로 제가 이사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김: 그렇다면 '바키'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대학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Gwen: '바키'라는 이름을 갖기 전까지 우리 대학은 노스웨스트 목회대학원(North-Western Graduate School of Ministry)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죠. 목회자 리더십이 강조되었고, 24명의 강사진은 목회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학은 1991년에, 당시 미국 북서부에 목회자들에게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이 없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

다.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남쪽의 풀러신학대학원이나 다른 학교들로 가야 했죠. 당시 노스웨스트 목회대학원의 신학 기반 위에 더 넓은 의미로의 사역 확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사회 개발 및 도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애틀 지역 인사인 레이 바키 씨가 이 학교를 알게 되었고, 때마침 에즈베리 신학대학원(Asbury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으로 섬기다가 은퇴한 데이비드 맥케나(David McKenna) 박사가 시애틀로 이사하면서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목회자 리더십(pastoral leadership)에서 도시 선교, 즉 더 넓은 범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학교 이름도 '바키'로 바꾸었습니다.

김: 바키 가족이 혹시 학교를 소유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학교나 어떤 것에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학교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Gwen: 바키 가족들은 학교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바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과 그들의 존재를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편: 레이 바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은데, 레이 바키는 어떤 분입니까?

Gwen: 그는 도시의 지도자로 사역지나 기관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었고, 도시문제와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놀라우리만치 명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학이 설립 초기부터 도시를 배움의 중요한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체제와 정부기관, 비영리 NGO 및 NPO 등과 함께 어우러져 도시의 살림을 위해 완전히 통합되는 것입니다.

편: 도시 선교라, 좀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Gwen: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시에서 모든 기관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마주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도시 구호 및 개발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그들이 배우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실행하죠. 일반 목회를 하기도 하구요(D.Min), 교회가 아닌 정부나 또는 영리나 비영리 NGO 등에서 일하기도 합니다(Do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T.L, 변혁적 리더십 과정). 또 어떤 학생들은 목회 리더십을 글로벌 도시로 확장시키기도 합니다(Master of Arts in Global Urban Leadership: M.A.G.U.L, 글로벌 도시 리더십 과정). 비영리 지도자를 위한 조직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등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M.A.S.C.E.: Master of Arts in Social and Civic Enterprise 사회적 공기업 석사), 비즈니스 및 기업가들도 함께하기도 합니다(M.B.A.). 이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또 다른 사역자입니다.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박사학위를 마치고 오거나,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들입니다. 더러는 기관이나 정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우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나라의 도시까지 확장됩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그곳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타국 신학대학의 총장이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김: 학생들 중 목회자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Gwen: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100%의 학생들이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비록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학위(M.Div.)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과정(M.B.A)도 있고, 박사과정에 더 이상 신학대학원 학위(M.Div.)를 요구하고 있

지도 않습니다. 석사나 그에 상응하는 학위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범위가 꽤 다양해졌습니다. 또 지금 가장 큰 프로그램이 D.T.L.(Do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박사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가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학교나 그런 훈련을 거친 자들, NGO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김: 혹시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모임을 갖기도 하나?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모이기도 하는지요?

Gwen: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관심사와 직업에 따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책 중 하나가 바키 대학의 국제부 부총장(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입니다. 우리는 4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했고, 석사과정 학생들 또한 많지요.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300여 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미미하게나마 연결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더 확장될 겁니다. 여러 국적의 그들이 같은 수업에서 만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법률·재무 문제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financial board)이고, 나머지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역 이사회'(board for regions)라고 부르는데, 레이 바키와 졸업생들이 과거부터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지에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원하기에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Don: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중국에도 13명의 졸업생들이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계획하고 그를 이행할 뿐이죠.





Gwen: 우리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타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배우고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밟아야 하겠죠. 대부분은 이미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탈바꿈이죠. 그것이 우리가 연구 기반의 박사과정에 학위를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실험하여 배우고 또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한 예로, MBA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하마에서 특별히 지원받아 함께하게 된 탁월한 간호사였죠. 바하마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생기는 부상을 전담하는 체계나 정부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부로부터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정책절차를 밟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했죠. 바로 그것이 그녀의 MBA 졸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그녀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습

니다. 이처럼 우간다, 필리핀 등 현지에는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대학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지요.

김: 도시 교회, 도시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히 레이 바키의 도시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인 <도시만큼 큰 신학>(A Theology as Big as the City)은 신학교 선교학 수업에서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

Gwen: 레이 바키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키와 중국과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신학교 도서관에서, 한 어린 학생이 그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혹시 <The Urban Christian: Effective Ministry in Today’s Urban World>의 작가 아니세요?”라고 묻더군요. 바키는 성경을 보는 안목과 성경내러티브를 관찰하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도시의 면면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움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얻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고기를 주기보다는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주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존적이기보다는 그들이 자립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키의 도시 선교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Don: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Gwen: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다가가야겠지만 권력자와의 접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대부분 구조부터 바뀌야 아니까요. 구조가 바뀌어야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할 수 있죠. 우리는 더 넓고도 전체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갓 졸업한 변호사로 그는 필리핀의 인종에 따른 사회적 계급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에서 심각하고도 큰 문제였습니다. 필리핀 원주민 집단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후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박탈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것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법무팀을 조직하고 팀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조사했어요. 그의 논문은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이었고 그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김: 전통적인 목회와는 다른 방식의 사역인데 혹시 설립 초기에 전통적 성향의 목회자 그룹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Gwen: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그들이 사역하는 방식이 유일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젊은 사역자들은 열린 자세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죠.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내다보는 리더도 있고요. 레이 바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죠. 물론 이제 그는 은퇴를 해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에게 배웠던 학생들이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바키대학의 수업 과정이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Gwen: 학교 자체의 캠퍼스가 있다거나 기숙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온 학생들이 생활비 외에도 추가경비 등 부담이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만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일부에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공한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현재 있는 일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많은 박사과정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죠. 관계형 온라인 강좌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른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소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수들은 일종의 질판 역할인 V-room에 필기하여 수업 중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실행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야 생기고 그래야 바뀌는 건데, 온라인 교육은 서로에게 관심 갖기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두 번째 우려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많은 조사 끝에 서로에 대한 익명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죠.

한 학생은 온라인 코스에서 관계가 형성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동료들에게는 남아메리카,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 등 세계 각지에 퍼져 있죠. 각각 다른 문화권에 속한 그들은 서로의 다른 생각을 교환하곤 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코스 자체를 즐깁니다. 온라인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여행가서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에서는 서로가 어우러져 함께 작업하는 심화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간 한 도시에서 모여 함께 작업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박사과정 학생에게 최소 1번은 이러한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고요. 항상 같은 지역에 가는 건 아니구요. 캘리포니아에서 지역발전을 관찰하며 1학기를 보낼 수도 있고, 과테말라에서 1학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김: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군요.

Gwen: 네, 또한 우리는 각처의 많은 교수 자원을 혼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김: 다른 나라들은 거기 있는 기독교 비영리단체 NGO나 NPO 등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등 신학교에서 진행합니다.

Don: 우리의 오랜 친구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가 그렇게 조언하더군요. 원래 이러한 방법으로 신학교에서 시작되었고요. 많은 신학교에서 해왔고 많은 이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교회가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선 되어야겠다고 싶었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통합되어 일터가 신앙과 분리되지 않도록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Gwen: 한국에서는 우리의 친구이자 바키대학의 겸임교수(resource faculty)로 있는 이금주 박사(미국명: Jewel Hyun)가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이미 천안의 고신대학원에서 일의 신학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강의를 했고, 현재 김 교수님이 계시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집중 강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도 간호학과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일의 신학 프로그램을 열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과 우리 바키대학은 서로 협력관계(MOU)를 맺어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일의 신학이 정착되고 발전하는데 서로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는 재학생들을 배우러 온 외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일의 신학을 필수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자



신의 전문 직업을 통해 고국에 돌아가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바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크리스천 오버만(Christian Overman)이라는 교육학자는 일의 신학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접목시키는 과제를 연구 중에 있는데, 여기에 김 교수님도 참여하십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일의 신학이 더욱 개발되어서 일터에서 제자도에 헌신하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김: 두 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R O M A N S



3

로마서 12-16장

사랑의 빛

이재철

10월 1일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전3권 완간!

- 1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6면
- 2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68면
- 3 사랑의 빛 400면

‘이재철표 설교, 의 또 다른 감동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설교에 이은

WORLDVIEW SPECTATL

법, 최소한의 윤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많은 윤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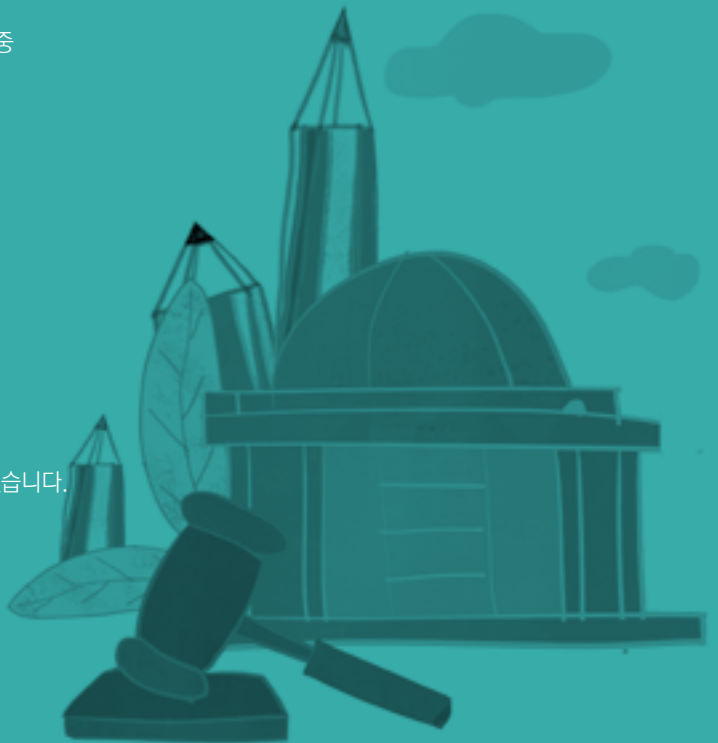
이 최소한의 윤리마저 지키지 않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믿으라 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정관이라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최소한의 틀, 정관.

우리 교회의 정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모범정관”인가?

「모범정관갯기운동」의 등장

교회는 천국의 표상이라는 영적 지위와 함께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구체적 조직으로 존재한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무정부 사회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의 법적 관리를 받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회란 “비법인 사단”으로서 정관을 갖게 되어 있다. “교회정관”은 모든 조직 교회가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서 해당 교회의 제도적 요건을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에 있어서 한국 교회 교인들 다수는 “교회정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 대개의 경우 교회를 설립할 시점에 누군가가 대충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일종의 “격양가(擊壤歌)”적 꿈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이러한 정관에 대한 무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런 정관이 교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교회의 갈등이 일반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일반 사회의 법정은 성문화되어 있는 “교회정관”을 갈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모범정관갯기운동」이 나타난 것은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약칭 개혁연대)」라는 단체가 출범하면서이다. 개혁연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건강교회운동본부가 교회개혁에 전념하기 위해 독립한 뒤 구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참여자들은 교회개혁을 위해 긴급구난, 제도개혁, 의식개혁의 세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모범정관갯기운동은 이 중에서 제도개혁분과가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운동이었다.

“모범정관”이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제도적 틀이다.



백중국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서울대학원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의 UCLA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 등의 저서 외에 수 십 편의 논문이 있다. 21세기정치학회장,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공동대표 등 학회와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김선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모범정관갯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2003)의 부록을 살펴보면 당시에 수집한 여러 교회의 정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도 있다.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부적절한 정관들이 태반이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모범정관은 먼저 올바른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이라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제도적 3대 원칙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민주화, 목사·장로의 임기제 도입,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였다. 그 후 이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각종 자료들 예컨대,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정관」, 「재정보고의 정식」,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등이 발간되었다.

최근 교회정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범정관의 참조는 상식이 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제도적 틀을 돌이켜 보고 가급적 복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교회에서 정관제정위원회 혹은 정관개정위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교회들이나 갈등 과정에서 분립하게 된 교회들은 더욱 절실하게 모범적인 정관의 틀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바람직한 제도적 틀, 즉 모범정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제도적 틀이 없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극단적 갈망,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 혹은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왜곡 등이 건전한 정관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〇〇〇교회법연구소 등의 명칭을 걸고 복음적 원칙과 상반되는 제도를 추천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모범정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주석신학 대 조직신학(?)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성경만 따르면 되지 교회정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교회는 “정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이상적이게 들리지만 건전한 것이 아니다.

우선 교회법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회에 성경 외의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장은 주석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 사이의 오랜 논쟁이었다. 답은 “그렇다”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제정된 신앙고백이나 신학이론, 법이나 규칙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준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전자는 교회 안에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이 성경을 대체할 위험성을, 후자는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통한 불건전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 이상 교회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획일의 위험”과 “분열의 위험”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신앙고백이나 법규범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제정한 주체의 권위 때문에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물이 과연 성경적 원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각자가 지닌 신앙양심이 그 판단자가 된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0장이 요약하는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정치 용어의 왜곡에 대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교회만큼 용어의 혼란과 특이성을 보이는 집단도 드물다. 한국 교회는 “중경총회장”, “서리집사”, “사모” 등 국어사전에서 그 용법을 찾아보기 힘든 용어를 양산해 왔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신본주의”, “헌법”, “일천번제”, “주의 종” 등의 용어들을 본래의 뜻과 왜곡되게 해석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계토화하는 것이며, 무지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왜곡일 수도 있다.

왜곡의 해악은 적지 않다. 예컨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一千燔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를 일천 번(一千番) 헌금하면 마침내 소원이 이뤄진다는 식의 샤머니즘적 신앙관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오해는 더욱 뿌리가 깊다. 신본주의(神本主義)의 반대는 인본주의(人本主義)이고, 신정(神政)의 반대는 세속정(世俗政)이며,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반대는 독재주의(獨裁主義)라는 게 사회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에서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광호 목사의 오류도 이와 같다. 그는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구성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지분적 권리를 가진다”로 이해하고 교회는 민주적 단체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교회법은 질서 문서이지 권력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한 ‘뉴스앤조이’의 기고문 표제어에 잘 나타나 있다. “민주적”, “지분적 권리”, “질서”, “권력적 규정” 등 많은 개념들이 부정확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뒤뜰린 개념들에 대한 토론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개혁교회의 정치 체제는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주석』(1983)에서 “장로회 정치의 정신은 한마디로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교리이다.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회헌법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동시에 장로회 정치는 지극히 신본주의적이다.

“헌법”과 “주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대체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입헌주의가 나타난 19세기 이후에 일반화된 개념이다. 주권(主權 sovereignty)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독

립·절대의 권력을 의미하며 몽테스큐가 이 개념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둘은 상호연관이 있는 개념이며 대체로 헌법은 주권의 표현으로 본다.

이러한 정치적 용어들이 교회정치에 사용될 때는 비유적(analogy)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상충하는냐는 문제이다. 전자가 신정(神政)이 아니라 세속정(世俗政)을 받아들인다면 의미상으로 앞의 ‘헌법’은 뒤의 ‘헌법’에 종속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그 반대라면 한국은 두 개의 헌법이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전자의 ‘헌법’이라는 표현은 동 교단의 의사를 신앙적으로 결집한 최고 문서라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실제로 예장합동 울산노회 소속의 남울산교회 문제에 대해 한국의 법원이 최종 판결한 바를 예장합동교단이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의 법원은 그 교회를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으로 간주할 뿐 그 교회에 대한 예장합동의 “주권”을 인정할 의사도 없었다.

정관(定款)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명료하고 유익한 개념이다. 정관은 회사나 공익 법인 등의 목적·조직·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국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개척교회가 국가기관에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단들은 “헌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막상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주체들이 적당히 꾸며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돕기 위해 예장통합은 총 8장 20조에 이르는 교회정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점은 「교회정관」을 가질 것이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교회정관」을 가질 것이냐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교회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소위 교회법 전문가들도 자주 빠지곤 하는 오류이다. 이쯤에서 정관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

지 않을 수 없다. 개교회의 정관은 민법상의 요구사항이며 해당 법안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법원은 교단헌법을 준용해야 할 특수사항(예컨대 목사의 자격 등) 이외의 사법적 판단을 각 교회의 정관에 준해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관이 부실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다.

모범정관의 의의

교회의 정관을 하위법으로 교단의 헌법을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개척교회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주석』(1983)에서 벌코프(Berkhof)를 인용하면서 “개척교회는 지교회 당회의 권한보다 더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척교회에서 당회, 노회, 총회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교리의 보존과 권징의 조화를 위해 협력하는 연합체들이다. 문제는 “헌법”이란 비유적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한국 교회 내에 성경의 정신과는 다른 왜곡된 권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회가 제각기 다른 정관을 채택하면 교리의 보존과 권징의 조화 혹은 교회의 일치에 해로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정관의 내용에서 각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고백과 권징의 절차를 인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비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약들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개교회가 정관을 가짐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교회의 위세를 떨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격되는 대형교회들의 “개교회주의”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범정관” 혹은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은 매우 유용하다. 마치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듯이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보다 좋은 제도를 채택할수록 더욱 주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해진다. 어떤 제도가 주의 뜻에 더욱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깊은 연구, 창의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정관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모범정관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직분자들의 임기제이다. 목사, 장로 혹은 집사일지라도 각각의 임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고려할 때 임기의 존재는 극히 유익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직분”, “직위”, “시무”, “위임”, “항존직”과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수립이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이 “민주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는 속히 불식시키는 게 좋다. 더구나 현재의 소위 “헌법”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질곡과 부덕함을 생각하면 어느 특정한 인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각급 회의체의 의사결정 정족수부터 확인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피차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민주적 구조를 마련할 일이다.

셋째는 투명한 재정구조의 확립이다. 각 교회의 재정 사항을 공개하고, 재정 항목을 합리화하며, 교회 재산의 관리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헌금이 주님의 일이 아닌 곳에 쓰이거나 낭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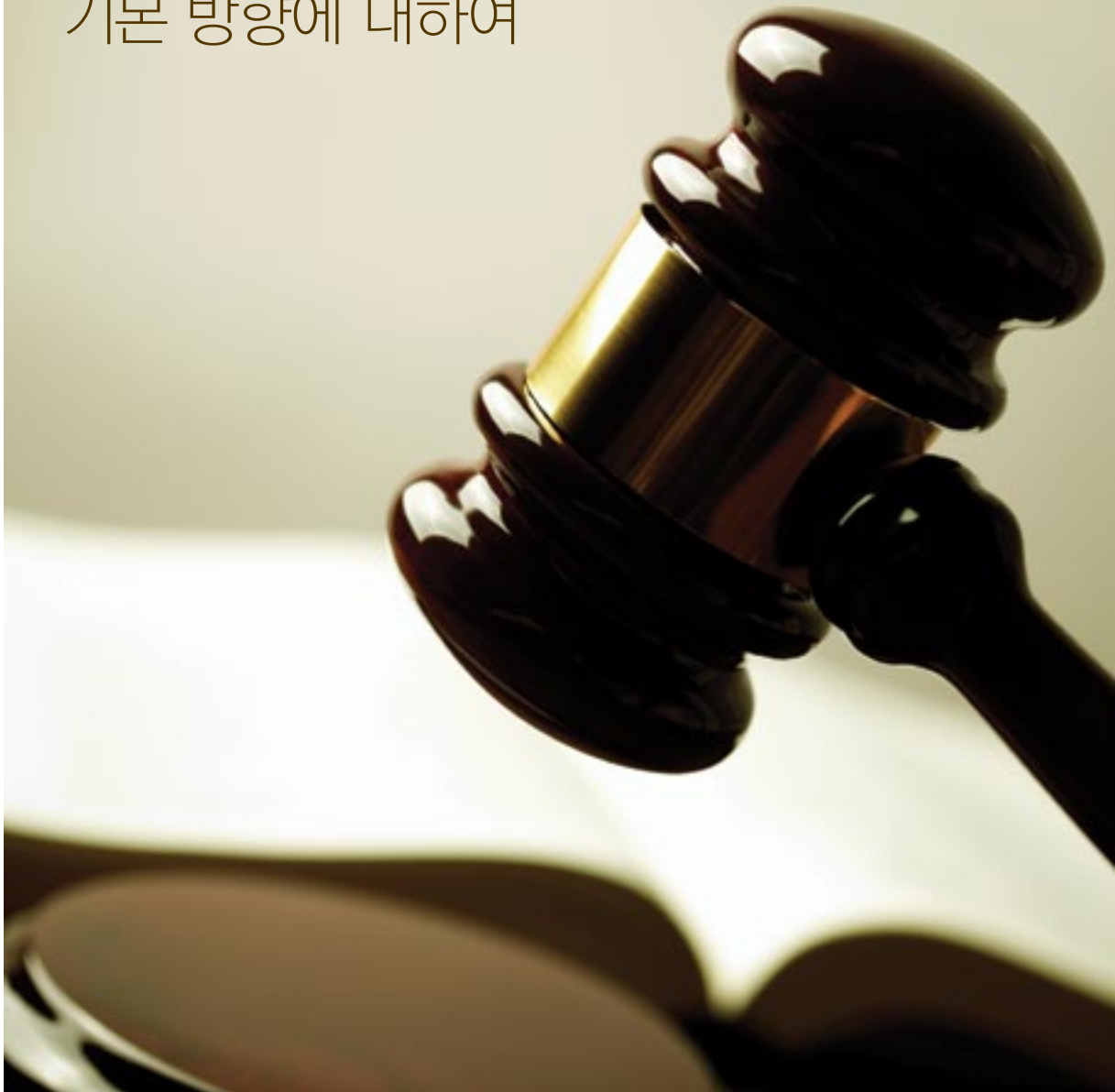
는 것을 방지하고 각 교회가 추구하는 개별적 비전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범정관의 채택은 한국 교회의 일치와 긴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교단 간의 협상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갈수록 교회 일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 교회 일치에의 큰 사명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주요 교단들의 노회한 정치가들로 조직된 이 단체의 지도부는 한국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앙고백과는 매우 동떨어진 방식으로 세속 정치에의 참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하는 성명서와 정책 그리고 활동이 과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다수의 뜻인지 아니면 고령의 극보수적인 소수 교단 정치가들의 뜻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직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각 교회의 비전을 반영하면서 신앙고백과 치리체제가 동일한 정관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일치 가능성을 높여준다. 좀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분산과 집중” 혹은 “특성화와 통합”을 조화시킬 수 있다. 역사와 위치, 크기가 각각 다른 개체 교회들이 반드시 같은 규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르지만 몸의 한 지체이듯이 각 개체교회는 한국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범정관의 채택 운동은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의 단일 헌법 채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이 글은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모범정관 관련 글들을 종합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 제정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조영길 본지 편집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00년부터 현재 까지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 자문, 인사 및 노동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1,2>(2011)이 있다.

머리말

인간의 단체조직에는 바른 운영 기준을 정해 놓은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그 단체의 규약 내지 정관이라 부른다. 교회도 인적 단체조직으로서 그 운영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정하는 정관이 필요하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 있는 규범은 성경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바른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화된 규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교회의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관의 제정 및 운용이 필요하다.

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인 창립 초기부터 수많은 분쟁들에 직면해 왔으므로 교회 운영 관련 분쟁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분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루기 위해 가장 권위 있는 규범인 정관을 제정하고 이를 바르게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교회 정관의 제정과 운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관(교회법) 제정을 인식하는 기본 관점: 정관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인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여 성문화하는 것인가?

단체의 정관은 그 단체를 다스리는 가장 권위 있는 규범으로 일종의 법이다. 생명체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의 제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이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의로운 기준을 사람이 겸손히 발견하여 성문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법을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관점은 인간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법을 제정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이어져 결국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나 유익을 법보다 우선하게



되는 인치(人治)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법의 제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정관을 이같이 세사적 관점으로 대하게 되면,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 결과 정관을 바라볼 때 담임목사나 교역자들에게 유리한 정관, 장로들에게 유리한 정관, 집사들, 성도들에게 유리한 정관 등으로 분류,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이하 통칭하여 제정이라고만 한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수많은 분쟁들은 본질적으로 정관을 인간들의 필요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인본적이고 당파적인 정관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본적 당파적 정관 인식은 교회의 주인은 마땅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법을 인간의 윤택이나 필요에 관계 없이 인간의 능력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정의로운 기준이라고 보면, 인간이 할 일은 겸손히 공의로운 법을 발견하여 이를 성문화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필요보다 올바른 법을 우선하는 법치로 귀결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로운 법의 다스림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관에도 부합한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제정에 관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유익을 우선하려는 관점들을 십자가 위에 완전히 못 박고 성경을 기초로 성령 안에서 무엇이 교회 운영에 적용되어야 할 공의로운 기준인가를 겸손히 탐구하며 함께 발견해 나가는 데 집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관 제정 및 운용의 기본 동기: 자기나 집단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실제로 교회의 정관을 제정하면서 성도들 간에 이견이 생길 때 각자의 견해의 근본 동기가 바르게 놓여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관에 대한 의견의 근본 동기가 자신이나 사람들(목사, 장로 등 교역자나 직분자들)의 유익함과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교회의 정관 제정 과정에서 목사, 장로 등 사람들의 불순한 이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전한 공의가 주도하도록 기도하고, 의논 협의 과정에서도 불순한 인간적인 계산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조직의 구성 원리: 신뢰와 협력인가? 불신과 억제인가?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거룩함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과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교역자, 직분자, 일반 성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교역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도 그 다스림에 따르지 않을 때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관에는 교회의 의사결정조직들인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담임목사, 감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상위의 의사결정조직이나 다른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불신과 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조직 구성원들은 누구라도 자신들의 유익 등을 위해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만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른 조직이나 성도들에 의해 불신 받고 의사결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충실하게 정관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직임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종신제보다는 일정 기간의 임기제 내지 재신임제로 정하는 것이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청빙이나 임직 조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벗어날 경

우를 대비하여 정당한 해임 사유와 그 절차 역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교회 의사결정의 사안들이 중요할수록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권한은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특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선임권과 해임권, 보수 등의 결정권, 그리고 교회 각종 사역의 예산 편성권과 결산 승인이 실무상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회 운영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각종 의사결정기구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잦은 정관 관련 분쟁은 교회 의사결정기구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의사결정권이 남용되는 경우들이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의 의장까지 겸하고, 주요한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예배의 설교권까지 보유토록 함에 따라 개인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담임목사와 담임목사 편의 당회원들이나 제직들이 교회 운영에서 성령의 다스림에서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려 할 때 이를 다른 의사결정 조직이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 공의롭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인 담임목사 임기제 내지는 재신임제, 담임목사 해임 방안, 담임목사의 재정 및 인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 억제 방안들을 정관에 명확하게 구체화할 때, 이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정관 제정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고비가 된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교만해져서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기초 위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혹시라도 교만해질 때를 반드시 상정해서 성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정관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실행조직의 구성 원리: 사제주의인가? 만인 제사장주의인가?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실행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실행할 때 목사 등 교역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은 상당히 뿌리 깊은 고정 관념이다.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교역자에게 실행의 주도권을 넘기려는 사제주의적 관점은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에서 평신도들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교회 운영을 비전문화 내지 비효율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역자나 일반 성도들의 구별 없이 각자 동등하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는 관점으로 실행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 중 예배나 양육 등은 교역자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반면, 재정, 총무, 구제 등은 일반 직분자들이 주도하도록 구성하되, 모든 사역들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 제정의 바른 절차

올바른 정관의 제정은 올바른 제정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안을 마련하는 조직을 성령 충만하고 전문성이 있는 성도들로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한 후, 정관안 수립기구 구성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좋은 정관에 대한 깊은 연구, 조사, 기도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관안이 마련되면 담임목사가 참여하는 당회나 운영위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충실한 심의를 해 가되,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의 관철 시도를 억제시키고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바른 교회 운영 원리를 하나하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발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되지 않는 안건들은 압도적 다수의 결의로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옳다. 정관 제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롭고 바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안이 당회나 운영위를 통과하면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압도적 다수(통상 투표 참여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법이든 그 제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앞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교회 정관 제정 과정도 동일하다. 따라서 정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순한 인간적인 계산에서 비롯되는 의견들에 대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온유하되 단호하게 대적하며 성령의 다스림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러한 의논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많은 부적절한 내용들이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

정관의 해석 적용 기구 운영에 대하여

아무리 정관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도 교회는 정관의 해석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견해가 나뉘는 문제들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정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교회 조직 내에 이를 담당하는 기구(예를 들어 법규위원회, 중재위원회)를 두고 이를 성령 충만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마무리

교회 정관의 제정과 운영 과정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갈림길은 이를 담당하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순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불순한 계산적인 이익 추구 욕구를 내려놓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의 제정 및 해석 적용에 참여하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나 장로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자신들의 불순한 인간적 유익이나 영광 추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정관의 제정과 해석 적용 과정이 순전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진정 머리가 되시는 성경적 교회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담임목사나 영향력 있는 장로들일수록 교회 정관에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 추구를 담으려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바르고 거룩한 기준인 정관 제정과 운용을 자신의 불순한 유익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바른 정관의 제정, 해석 운용 과정에서 성경의 바른 기초 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5.9.12일자)

교회의 정관, 그 효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모든 단체는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전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고 불문 규율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성문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에는 동창회나 계에도 '회칙'이나 '규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교회는 독자적인 내부 규범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인들이 신앙공동체인 교회 내에 법규범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고, 또한 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각 교단의 경우 오래 전부터(장로교의 경우 1919년에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채택하였다) '헌법'을 제정해 왔는데, 대부분의 '헌법'이 서구 교회의 헌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 내의 주요 규범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자체 정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교회 내의 재산이 증가하고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 내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된 점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이유로는 수년 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모범정관'을 제정하여 배포한 것과 최근 교회 내 극심한 분쟁을 겪은 '분당중앙교회'가 전국 교회를 상대로 정관 갖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회가 정관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단체이든지 내부 규범을 문서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관의 내용이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정관에는 교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위 '모범정관'에는 교인들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반해, '분당중앙교회'가 제정한 정관에는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정관에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성문화된 규범이라는 이유로 자치적 법규범으로 인정되어 교인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되는데(교회 자체는 법인이 아니어서 교회 자체의 재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통상 교회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것, 즉 총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총유 재산의 처분 시 어느 기관에서 결의해야 하는지를 비롯하여, 목사의 청빙이나 해임 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

라 달라진다. 이처럼 일단 어떤 내용이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관은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분쟁을 격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교회 정관의 효용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관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정관에 교회 전통과 맞지 않거나 매우 비민주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교단 소속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 29026 판결). 그러나 자치적 법규범인 정관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제한에 위반된 정관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0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법원은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강문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였다. 현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자문위원이자,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회 위원, 인하대 로스쿨 지도변호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비정규직법』(공저),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의 다수가 있다.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고(위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도 무효라고 보았으며(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7다28642 판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가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도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1두3692 판결). 법원의 이런 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회 내 정관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것이다. 교회 내 정관은 아니지만 법원은 목사 불신임 투표를 금지한 모 교단의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그 투표 절차를 인가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비합40),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교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모 교단의 헌법시행규정도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정관의 특정 규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訴)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관은 단체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인데, 확인의 소(訴)로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로 인해 생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訴) 등을 제기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목사 불신임 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 자체를 무효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대신 그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불신임 투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관의 제정과 개정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 교회는 법률상 비법인사단에 해

당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비법인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전체 교인이란 세례를 받은 교인을 의미한다. 교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의 구성원의 범위를 나이에 따라 제한해 놓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도 교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도 교단 헌법에 실종교인 또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을 변경할 때의 요건은 이와 같은데, 정관을 처음 제정할 때의 요건은 민법에 정관의 제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에 대한 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법인사단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 시부터 반드시 정관을 제정해야 하고 정관의 제정은 설립자 몇 명이 의사를 합쳐서 하므로 특별히 정관의 제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에 반해 비법인사단의 경우 설립 시에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교회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정관이 없는 교회도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문 규율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관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소속 교단

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6. 0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해졌거나 정해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06. 06. 09. 자 2003마1321 결정),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교회 자신의 내부 규범으로 받아들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원래 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단체의 내부 규정에 상급 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상급 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그러나 교회의 경우 교단에 가입할 때 교단의 헌법을 승인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있으므로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교회 자신의 내부 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정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만이 교회 내부의 규범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정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교단의 정관과 교회의 헌법 중 어느 규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각 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교단의 이러한 존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개별 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

았다. 즉, 교단이 각 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렇다고 교단이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개별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개별 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0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법원은 개별 교회가 만든 목사에게 대한 '재신임 규약'은 교단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가합5664 판결), 개별 교회가 만든 '장로수칙'은 교단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인천지방법원 2009. 9. 4.자 2009가합1593 결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단이 개별 교회 교인들의 목사 불신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회 정관은 한편으로는 교회 헌법에 의해 제한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헌법을 보충한다. '교회 개혁실천연대'든 '분당중앙교회'든, 교회에 정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당연히 후자의 역할에 더 주목한다.

애초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이 미처 그리고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교회 내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게 호출된 '교회 정관'이 교회 내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안을 추구하지만 세속의 모든 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역할은 정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니, 정관은 교회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가이사의 법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저자 양인평 외 2명 | 새물결플러스 | 정가 11,000원

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 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교회와 건축, 교회와 세금,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법률상식에 대하여 서술한다. 사회에는 교유의 법이 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며, 작은 사회로서 교유의 교회법을 가진다. 그러나 이 교회법은 세상법(대한민국의 실정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와 교회 구성원이 모두 교회와 관련된 세상법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교회법과 세상법의 개념이나 성격, 관계, 나아가서는 그 적용사항이나 범위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해설해 준다.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저자 고득륜 | 홍성사 | 정가 9,000원

인간이 만든 법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경적 관점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성경 속 인물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법률가가 변호에 임해야 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해, 로마서를 통해 보는 형평법 판단 기준인 양심의 실체, 법 전문가에게 내리는 예수님의 경고, 물의 속성에 깃든 변호사 윤리,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논증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헌법과 행정법 원리에 비추어 본 정치기의 자유재량 행사 범위,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의 질서로 푸는 율법주의 대 믿음의 법치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법학의 풍성하고도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인간의 법으로 기독교 교리를 절묘하게 논증하고, 또한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모범정관 건강한 교회의 기본

저자 뉴스앤조이 취재팀 | 뉴스앤조이(newsjoy) | 정가 6,000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란 말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간적인 처사라는 오해도 더러 있다. 이러한 생각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므로 더욱 문제가 된다. 이 책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모범정관'을 이야기한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상처 치유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 처 치 유

- 상처#1.** 수술이 끝났다. 복부에 약10cm 정도의 피부절개 자국이 남았다. 요즘은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지만, 개복을 해야만 하는 수술이라 상처가 크다. 상처 부위에서 아직 피가 뭍어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 지나면 피도 멈추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제 잘 낫기만을 기원한다.
- 상처#2.** 뉴욕에 사는 찰스는 간경변으로 사경을 헤매는 가족을 위해 본인의 간 반 이상을 절제하여 간이식 공여자가 되었다. 찰스의 간은 하나였지만 이제 두 사람을 살리는 간이 되었다. 남아 있는 찰스의 간은 어떻게 될까?
- 상처#3.** 우리교회 김집사님의 아들 철수는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 학교를 그만 두었다. 철수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된다고 호소한다. 철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열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처 1, 2, 3의 공통점

1. '관계의 깨어짐'이다.

모든 상처는 관계의 깨어짐을 수반한다. 피부와 피하 조직, 근육과 근육막, 뼈와 근육의 연결이 깨어진다. 연결되어 있었고 붙어있던 관계가 떨어진다. 혈액공급이 중단되고, 신경조직이 떨어진다. 서로를 연결하던 세포 간의 물질들이 단절된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2. '치유의 순서'이다

몸의 상처는 거의 대부분 같은 경로를 거쳐서 상처가 치유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적인 보호'이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상처부위의 혈관수축부터 시작한다. 적은양이지만 국소적으로 또 전신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의 혈관이 강력하게 수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혈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인 혈액응고 시스템을 작동한다. 상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상처부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 자신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상처부위의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응고가 시작되면, 상처부위로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이동한다. 백혈구는 외부로부터의 병원균도 막아주고 내부의 쓸데없는 상처잔해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백혈구들은 불침번과도 같이 상처를 곁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상처의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는 다음단계가 시작되면 스스로 상처부위의 모든 쓰레기들을 품고 죽어간다. 상처 치유의 내면적 힘의 원천은 지켜주고 보호하는 백혈구들의 희생에서 발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작'이다.

백혈구들의 희생적인 돌봄 가운데 원래 조직의 세포들이 자라나는 시기이다.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듯이 이 단계의 세포들은 아직은 어린조직들이다. 보호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의 두 단계를 통하여 탄탄한 기본을 갖추고 이제 상처 이전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힘찬 걸음을 연습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같지만 다른 본질'이다.

자라나는 조직세포들 사이에 이들을 지지하는 세포의 기질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서 마치 골조 사이를 메우는 콘크리트 같이 그 사이를 세포들이 채워 나간다. 이제 세포들은 안정적인 구조의 완성 속에 이전의 모습을 재현해 낸다. 치유의 메카니즘은 정확하게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어렸을 적 상처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과 약간은 모양이 다르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흔적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다. 같지만 다른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완성된 상처치유이다.




3. 마지막 공통점은 모두 '최초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와 근육과 간이 최초로 지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치유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지음 받은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 상처1, 2, 3에게 공통적으로 실현되어야 상처는 치유된다. 모든 상처는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

상처 1, 2, 3의 현재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개복수술의 흔적은 복부에 남아있고, 피부에 생긴 상처는 피부에 남아 있고, 마음에 생긴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모두 치유는 되었다. 견딜 수 없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도 이젠 흔적만 남긴 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찰스의 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이미 쓰여 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간은 절제 후 약 2주 만 지나도 거의 처음의 크기로 상처치유가 일어난다.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상처가 생김과 동시에 상처 치유의 과정도 시작된다. 상처가 시작되는 순간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응고 되며, 백혈구의 응집과 새로운 세포의 증식 및 조직 리모델링의 전 과정이 준비된다. 사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재창조의 과정을 경험한다. 우리 몸이 생길 때와 거의 동일한 과정이 상처 치유의 과정을 통해 재현된다. 상처가 새로운 창조를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상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중언어 유·초·중·고등 교육기관, 기독교 고전교육

**SICA 학생 모집**www.sicakorea.org**문법 단계(초등)**전 과목의 기초 개념과
지식 교육**논리 단계(중등)**문법 단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
논증, 변론을 통한 토론 교육**수사 단계(고등)**문법,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연설과 에세이 통합 교육**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모든 학교의 근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성경을 모든 과목의 기초와 진리로 삼았습니다.

SICA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길러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SICA는 전 과목을 역사로 통합하여 교육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역사책이며,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과목간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SICA는 이중 언어로 교육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어의 장점과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어 교육을 합니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세계적 위대한 학자들이 고전교육을 통해 배움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고전교육은 삼학계(Trivium)라 불리는 문법-논리-수사단계를 배움의 틀로 삼아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입증된 교육 방법입니다.

SICA는 부모님과 함께 가는 학교입니다

부모의 삶은 아이들의 배움의 토양입니다.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권위가 있고 학교는 그 권위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가정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SICA는 살랏 메이슨 교육 철학을 토대로 가르칩니다

살랏 메이슨은 이력서부터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품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 감사, 순종, 자제력, 배려뿐만 아니라 잘 듣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곧 상품이고 배움의 기초요, 과정입니다. 또, 교과서가 아닌 Whole Book(축약하지 않은 책), Living Book(살아있는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서울 양재캠퍼스: 유·초·중등(통학), 여주캠퍼스: 고등(기숙, 2016년 8월 개교 예정)

입학상담 02) 557-7710 / infosicakorea@gmail.com

10월 입학설명회 일시: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 SICA(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대학원, (주)헤럴드 공동 주최 / 주한영국대사관 공식 후원

2015년 제6회 SKEC 영어글쓰기대회초등부 저학년 · 고학년 국제부 부문 **9명 수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석환 지 | 시류

저자가 직접 43일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생긴 하루하루의 에피소드와, 말문을 담음으로써 깨달은 '말'의 본질을 기록한 책으로 묵언을 통해 얻은 '소통', '관계', '단순해진 삶'을 이야기 합니다. 상처, 다툼, 오히려 얼룩진 번잡한 삶에 염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묵언의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합니다.

Thankgive's Think

휴식, 억지춘향이라도 좋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의 말이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답게 휴식의 중요성을 적절한 비유로 풀었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 70%가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H. 프뤼덴버그가 최초로 사용한 이 용어는,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어느 시점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극도로 느끼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번아웃 증후군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책의 저자 편석환 교수는 의도치 않은 묵언 생활을 43일간 하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의 묵언 생활은 광고 카피처럼 익살스럽다. 묵언을 시작한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올 뻔하기도 하며, 휴지가 다 떨어진 화장실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말문을 단음으로써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아무 말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쉴 새 없이 글 수다를 떨고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무엇을 새로 채우기 위해서는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뇌 과학자들도 이야기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할 때 집중력과 수행력이 높아진다고.

keyword

묵언 # 평화로움 # 관계의 깊이 # 불편 # 단순한 삶 # 불편 # 은둔 # 버리는 삶
외로움 # 또 다른 일상 # 자유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그리스도와 법』 인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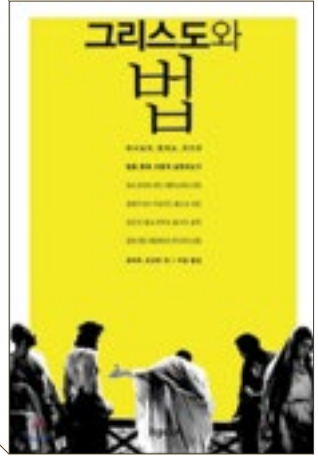
방학을 맞이하여 신앙서적을 하나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와중에 월드뷰 편집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로버트 코크란 외, 『그리스도와 법』에 대한 서평을 써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이렇게나마 결심한 바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당해 책은 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글이라 읽는 데에 적잖이 애를 먹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법학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필자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어서 흥미진진하게 읽었다는 사실 역시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님의 인도로 참석하게 된 기독교법사상 모임에서 필자는 강의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적 혹은 성서적 가치관을 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다. 사실 필자는 다니엘의 본을 생각하며 세상일에 빈틈없는 기민함을 보여야 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과는 절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여전히 그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접한 당해 문헌은 성서적인 해답과 아울러 지속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 준 소중한 나침반과 같은 책이었다.

『그리스도와 법』에 대한 네 가지 입장

성서에서 ‘법’은 여러 가지 면모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선 일방적인 방향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즉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율법을 상징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해 율법을 완전히 하사시켜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신 바 있으며(마 5:17),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 선생은 사랑이



김용훈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을 거쳐 현재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유럽연합의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경인문화사(2012)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2011.12);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2011.12); “평등권의 미국 헌법상 논의-미국 헌법상 성평등 논의와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2호(2013.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며(롬 13:10)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고 율법의 중요성을 바울 선생이 간과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문학 선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지침적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 그리고 세상적인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책자의 표지가 말해 주듯 오히려 세상은 '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단으로, 자기 행위의 정당화 수단으로 오용할 뿐이다. 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법'이라고 다르지 않다. 인간의 '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김종철 변호사님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인용하신 기독교법률가회의 비전 "법과 제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개혁해 법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와 같이, 법률 영역 역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법과 기독교가 친하다는 주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해롤드 버만 교수님 역시 당해 사항을 고백한 바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저서인 『법과 종교의 상호 작용』에 대한 동료 교수들의 흥미를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법학 교수가 법과 종교, 그것도 법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이는 주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책, 14쪽). 당해 문헌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법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해 문헌에서는 이를 위한 네 가지 입장을 소개하며 당해 노력의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종합주의자(그리스도와 법 화해시키기)들은 가톨릭 영역에서의 신학적 기초, 인간상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자연법 논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인간의 죄성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찾고, 강제력을 이용해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 공동선의 적극적인 증진과 조정"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시민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그 집단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도모되어야 한다고 상정한다(책, 72쪽). 나아가 "만약 세속법이 윤리적 질서를 거슬러,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입법된다면" 그 법은 "시민들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자연법을 "인간의 선택에 대해 규범적인 강제력을 갖는 원리와 규범, 그것의 존

재나 유효성이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존되지 않는 규범이나 원리"로 상정한 후, "자연적인 도덕법이 그 존재나 유효성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적으로 종합주의자들은 "교회와 도덕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책, 110쪽)...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음"신다(책, 111쪽)는 사실에 기반하여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리고 변혁주의자(법을 변혁하는 그리스도)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장 칼뱅의 믿음에 근거하여 인간의 동기와 신념, 나아가 행동 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권력, 입법부, 인민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오로지 "인간의 성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줄 도구로서(성경적 의미와 세속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 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책, 120쪽). 물론 여전히 "의사결정자가 성경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식이나 세속적 이성만이 지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책, 151쪽),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문이 신앙을 반영한다는 점 역시 그들은 지적하고 있다(책, 153~154쪽).

분리주의자(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는 침례교도 다수의 생각을 원용하여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과정 참여를 포함한 여타 정치적 참여에 거의 가치를 두지 않았"(199쪽)고, "외부의 세계를 신성한 혁신이 요청되는 영구적·반영구적 장소보다는 순례의 장소로 여겼다. 그들은 누구도 세속의 돌무더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믿었다(200쪽)"고 소개하며 세상과 분리된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왕국의 법과 정치적 권력의 집

행 과정에 불러내는 것은 그분이(최소한 현세에서는) 거절하신 왕국으로 그분을 옷 입히는 꼴"임을 지적하며 분리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비종교적 교육은 학생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미국의 '하나님 없는' 공립학교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순례자들인 우리의 올바른 행동 개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책, 225~226쪽). 그리고 혼인 서약을 영원히 지속시킬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파탄주의'적 혼인 모델에서 '언약적' 혼인 모델로 이행할 것과(책, 232쪽), 복지/규제 국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고양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역할 축소를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책, 232~235쪽).


이원주의자(법과 긴장 관계의 그리스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법을 활용할 필요성을 믿었던 루터의 믿음에 기초하여, 법의 중심 초점으로 "언제나 사유의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법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자리가 반영된 특정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제시한다(책, 270~271쪽). 따라서 법의 형성 및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법을 집행하려는 자들을 지지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하고 동시에 법이 계획·해석·집행되는 모든 순간에 정의롭지 않을 경우 끊임없이 정직하게 비판적이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웃의 복지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인간의 논쟁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의 존재를 믿는 루터파를 소개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책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법』은 기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주의자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분리되

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상정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분리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등 당해 문헌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문헌의 연구와 논의는 법 영역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루터의 선언과 같이 ‘성경으로 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각의 견해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모두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세상)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하반절)”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지혜로워질 것을 당부하셨다.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분리 역시 명령하지 않으셨다(“...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유는 것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요 17:14하반절~15”).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입장을 고려하되 성경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들 역시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갖가지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법, 법 관련 제도와 기구는 우리 세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의 갈 바를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리처드 던컨 교수 역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당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한 과부의 이야기이다. 남편의 유산인 네 채의 아파트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에블린 스미스 부인은 혼전 성

관계가 죄라는 확신 하에 동거를 원하는 미혼 연인에게 임대료 거부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주거에 관한 공정한 법률에 따라 동거 중인 미혼 연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따라 스미스 부인은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었다(책, 232쪽). 결국 법원은 ‘합법적이고 존엄한 법익(legal and dignity interests)’이 스미스 부인의 ‘사업 윤리에 대한 신의 요구’보다 훨씬 중요하며,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집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만을 향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책, 234쪽). 이에 대하여 리처드 던컨 교수는 「분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정부 역할의 획기적 축소를 주장하지만, 그 어려움을 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당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 역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책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 입장은 각각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 소중한 지침과 방향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입장 중 무엇이 보다 타당한지는 독자의 몫이지만, 「그리스도와 법」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가까운 곳에 책을 두고 각 입장을 참고하여 보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와 법’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데, 리처드 던컨 교수의 제안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부터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기준과 원칙은 성경 말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는 예수님의 ‘사랑 명령’을 상기하면, 법 영역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의 경기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폴 투르니에의 명저 『인생의 사계절』과 『노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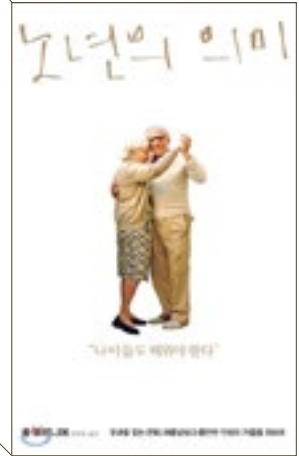
I

“인격의학”의 주창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이미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의 저서만 해도 십 여권에 이르며,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목회 상담가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다. “현대 의학의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들의 의로지식이나 기술에 뒤흔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 속에서 ‘인격의학’의 주창자로서의 생각과 삶을 함축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의 영향력은, 미국의 기독교사치과의사협회(CMDA, the 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s)에 The Paul Tournier Institute가 있고, 그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Association Paul Tournier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인 의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회가 해마다 모이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006년에는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서 그의 저서 『인간의 의미(Meaning of Person)』를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50권의 책에 선정하기도 했다.



김민철 활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자인 통합암병원 원장이며, 전주예수병원장, G샘통합암병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구호 팀장으로, 그 후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기도 했다. 캐나다 TWU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였고 VIEW(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 서는 객원교수로 생명윤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누가회(CMF) 이사장, 《누가들의 세계》, 《의료와 선교》 편집장, 한국기독교 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 의료』,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한국 사회 발전과 기독교』(공저), 『문서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공저), 번역서로 『상처 받은 세상, 상처 받은 치유자들』, 『의료의 성경적 접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등이 있다.



II

아바서원에서 『인생의 사계절』이 다시 출판되었을 때(2013.2), 아주 오래 전에 이 책을 읽은 기억이 나서 책장 구석구석을 뒤져 누렇게 변한 문고본(종로서적)을 다시 꺼내 본 기억이 난다. 젊어서 읽었던 그 책에는 의외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이였다. 칼프리트 폰 뒤르크하임이라는 심리치료사가 자신을 찾아온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 노인은 젊은 사람들조차도 포기한 산을 자신이 등반했다고 환한 표정으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뒤르크하임 교수는 그 노인에게 단호하게 “그런 일은 불필요한 허세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단념해야 할 행동을 자연법칙을 거슬러 잠깐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기쁨이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데 달려있다면, 그런 기쁨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절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아직 젊었을 때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내 나이가 육십이 넘고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

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이인 것처럼 살려고 하면 사실 젊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또 나이든 삶의 소중한 의미도 느껴보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아바서원에서 펴낸 『인생의 사계절』을 다시 일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라는 장은 있지만 사계절 중 겨울이 나오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의미”라는 장이 마지막이었고 겨울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가을에서 겨울로”에 해당하는 이 책, 『노년의 의미』가 나올 거라는 암시였는지도 모르겠다.

『노년의 의미』(Apprendre A Vieillir, 1971)를 출판한 포이에마는 헨리 나우웬/월터 게프니의 『나이 든다는 것』(Aging: The Fulfilment of Life, 1974)이라는 책을 앞서 2014년 말에 번역·출판하였다. 둘 다 이미 쓰여진 지 40년이 지난 책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번역·출판하여 소개된 것이 잘 준비되지 않은 채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유럽이나 미대륙에 비해 한국은 그만큼의 사회·경제적 시차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III

그 격차 때문일까? 구절마다 원론적으로 옳고 마 음 속에서 우리나라의 공감기가 있었으며, 때로 감동적 이기까지 한 이 책의 내용들이 문득 이질감을 느끼 게 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1970년대의 유럽에서 기록된 이 책의 내용을 같은 공감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 구심이 들었다는 말이다. 물론 투르니에가 책 앞부 분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런 대로 여 유럽계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 리는 사람들(36쪽)’로 독자층을 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이 꼭 저자의 잘못으로 연결될 일은 아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 가 느끼는 불편함은 은퇴를 직면한 많은 한국인들 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투르니에가 이 책을 쓰던 당시 유럽의 노동 현실 은 이 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섬유회사의 경 우 노동시간이 주당 6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들었고, 철도 종사원의 경우도 연간 39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 미국

도 비슷한 상황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41시간 이었고, 스위스의 경우 1950년대부터 연간 3주일 의 유급휴가와 연방정부가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 가 시간의 증가는 퇴행적이고 파분한 삶, 더 나아 가 불안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 고 있다. 이 말은 저자가 말한 여유로운 사람들에 게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중 산층이 처한 현실이 1970년대 유럽 상황과 같다고 전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은퇴를 앞둔 중· 노년층이 유럽의 노동자 수준에 버금가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 한국인 독자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정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투르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에서 “일반적 으로 성인은 젊은 날의 이상을 간직하고 살아갑니 다. 사실 성인기의 활동에 필요한 활력은 대개 청년 기의 이상에서 나옵니다”라는 말도 원론적으로 수 궁이 가는 옳은 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학생의 행복이 교육 목표’인 스위스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



과 달리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받는 왜곡된 교육, 즉 성취지향적 경쟁주의를 동력으로 추진되는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의 현실과는 괴리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오히려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특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며 노년을 맞이하는 중년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년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서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VI

이 책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일과 여가'에서는 일에 매달려 성취지향적 삶을 살면서 평소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프로이트를 빌어 어린 시절에서 성인이 되는 자연적 단계, 즉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전환점을 설명하고, 용을 빌어 자연적 단계에서 두 번째 문화의 단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두 전환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은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전반기에는 생물학적 본능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했지만, 후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여가 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르니에는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그 준비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고 삶의 절정기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살펴본다. 노인의 운명은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나 노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노인이 살아가는 특정한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축복과 같은 것이나 가족, 친구 관계 및 노년을 보내는 장소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은퇴자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사교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이어서 혐오스런 노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노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성향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돋보기라고 한다. 따라서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마음가짐의 변화, 일종의 자발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장에서는 노년이 제2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판에 박힌 일이 아니라 문화적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여가활동은 '제2의 이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유한다. '제2의 이력'이란 자유로운 활동이면서 다분히 사회성을 띤 동기에서 시작되며 돈과 권력을 위한 직업 활동과는 달리 노년에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누리던 권력, 직업인으로 일할 때 경쟁에서의 승리와 지위에 대한 맛, 명령하는 특권 등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시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한다.

5장에서는 유한한 인생을 수용하고 미완성임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늙어 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본래의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노년이 요구하는 포기는 몸과 관련된 것이지 마음과 정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행동에 관련된 것이지 존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독점욕을 떨쳐 버리고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본능을 승화하여 이익이 아니라 헌신에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오늘날의 돈 중심 소비사회를 보완하여 '나눔의 사회'로 바뀌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긴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 넓고 더 깊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데까지 저자는 나아간다. 삶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독자층,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숙고해 들어야 할 메시지일 것이다.

6장은 '믿음'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노년과 다가오는 죽음을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까? 투르니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죽음의 수용을 종교적인 문제로 보기보다 심리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행동이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 사실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불안을 표현한 인간 본성을 살았고 죽음의 불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듯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안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굳게 믿는 것이다. 투르니에는 여러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들을 비교 소개하며 죽음의 경험을 통과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환희의 부활에 대해 독특하고 탁월한 기독교적 변증을 하고 있다. 죽음의 수용이 죽음을 변화시키며, 죽음은 부활을 위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다. 영생은 죽음으로 끊겨진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통과



하는 연결된 삶이다. 투르니에는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through death) 완성하신 것처럼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여정이라는 믿음을 설득력 있게 변증하며 『노년의 의미』를, 『인생의 사계절』로 치자면 “가을에서 겨울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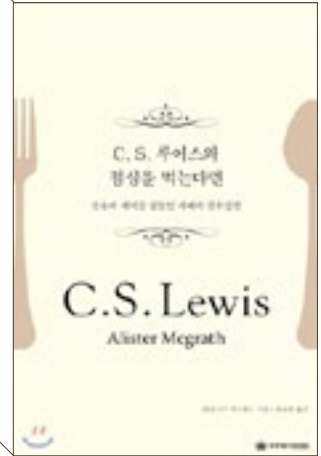
V

이 책은 노년의 문제의 사회역학적인 관계를 살피는 일에서부터, 여가활동을 문화적 의미와 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노년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수용을 통해 죽음을 변화시키는 경지까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연결함으로써 ‘곧 알게 될 영역’인 종교적 영역까지를 잘 정리해 놓은 교과서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채 노년과 조우하여 절망적 상황으로 빠져들 때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상황에 따른 단편적인 조언의 글들과는 달리 노년의 문제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교과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최요한 역
| 국제제자훈련원(DMI)

서평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는다면』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 만나 볼래요?



설레는 제목이다.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다니. C.S.루이스와 점심을 먹는다면 뭘 먹을까?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떨까? 밥이 잘 넘어가긴 할까? 여쭙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식사를 엄청 방해하겠지? 아 참, 난 영어를 잘 못하지. 꼭 영어 때문이 아니라도 솔직히 설레면서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강의를 듣는다면 또 모를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기는 좀 그렇다. 너무 대가라서 그런가. 하여튼 ‘거시기’ 하다. 그런데 참 다행이다. 독대는 아니다. C.S. 루이스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심정을 이해하시고 먼저 셋이 함께 보자고 하신다. 단 둘이 만나는 건 친해지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분은 무척 친절하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이런 친절한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바로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루이스를 읽었으며, 읽을 때마다 그의 다층적인 지혜의 진가를 새롭게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늘 힘썼다고 밝힌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지라도 ‘결국 독자가 직접 루이스를 읽어야 한다.’(15 쪽)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유혹하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낸다. ‘루이스는 이런 사람이예요.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만나 보고 싶지요? 두 분 친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소개할게요. 언제 같이 식사해요.’라고 말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독자들이 루이스와 마주 앉아 식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다. 저자의 초대장이 참으로 정성스럽다. 총 8번의 만남을 제안하는데, 매번 루이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가 중요하게 여긴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행동을 풀어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 수료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지역아카데미 교육농장센터 위촉연구원이다.

준다. 루이스의 삶이나 조언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살짝 살짝 엿볼 수 있다. 여덟 번을 만나며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만남. 대형 파노라마 사진. C.S. 루이스, 인생의 의미를 말한다.

두 번째 만남. “오래 사귄 친구가 믿을 수 있고.” C.S. 루이스, 우정을 말한다.

세 번째 만남. 이야기로 지은 세계. C.S. 루이스, 나니아와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네 번째 만남. 구주와 사자. C.S. 루이스, 아슬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

다섯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 C.S. 루이스, 변증을 말한다.

여섯 번째 만남. 배움에 대한 사랑. C.S. 루이스, 교육을 말한다.

일곱 번째 만남. 고통과 싸우다.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를 말한다.

여덟 번째 만남. “더 높고, 더 깊숙이” C.S. 루이스, 소망과 천국을 말한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나누게 될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C.S. 루이스의 유명세에 실린 조각 정보만으로도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서 재미있다. 예를 들면, ‘다섯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 C.S. 루이스, 변증을 말한다.’ 부분이 그렇다. 『순전한 기독교』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C.S. 루이스가 뛰어난 변증론자로 알려진 만큼 루이스와 변증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변증 ‘내용’이 주가 될 것만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점점 냉담해지는 문화 환경에서 루이스가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변호했는지’(130쪽)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변증의 내용을 보며 ‘우와, 이렇게 설명되는구나!’가 아니라 ‘기독교에 유리한 지적이고 창의적인 풍토를 만들고 유


지’(144쪽)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변증을 택한 루이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루이스는 변증으로 기독교의 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인간의 경험을 지성으로 성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도 강하게 제시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이다. 이 만남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변증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저자는 루이스의 변증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소홀하진 않지만, 그보다 변증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도록 은근히 설득하는 데 무게를 둔다. 그러니 이 책을 읽으면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 눈으로 꼭 봐야 할 것만 같다. 이 점이 이 책의 또 다른 기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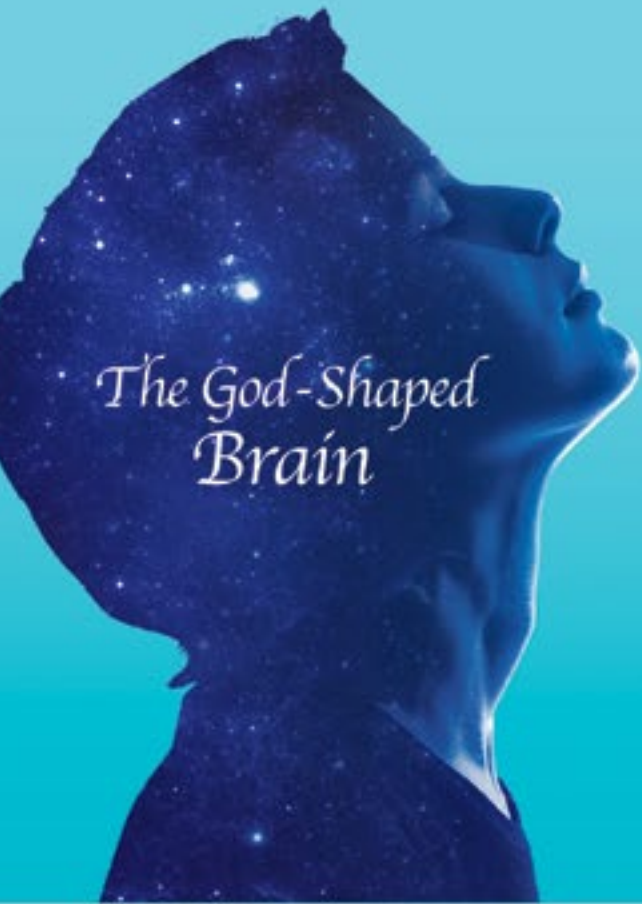
저자가 준비한 만남을 이어가면 점점 더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고 싶어진다. 만남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주제에 충실하게 전개되지만, 주제에 따라 그 주제를 다룬 저작들을 기반으로 진행되니 자연스럽게 루이스의 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저 관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루이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자가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를 이해할수록 직접 루이스를 읽고 싶은 생각이 커진다. 왜냐하면 저자가 ‘루이스의 말은 확실히 옳다.’(221쪽)고 할 때도 있지만,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펼친 변증은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140쪽)고 말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가 주장하는 바는 (...)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141쪽)라고 루이스의 생각에 자기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루이스가 (...)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132쪽)며 자신은 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 불과함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니 진짜 루이스가 궁금하면 직접 만나야만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읽고 싶어지는 책 중 단연 최고는 『순전한 기독교』일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다루는 첫 번째 만남,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번째 만남, 루이스의 천국을 보여 주며 소망을 말하는 여덟 번째 만남은 『순전한 기독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이에 못지 않다.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은 직접적으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비롯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다루는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에 강하게 권한다. 이야기에 대한 설명만 읽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덮기에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는 초청’이 너무 매력적이다. 같은 방식으로 루이스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번째 만남은 『네 가지 사랑』을, 교육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여섯 번째 만남은 『인간 폐지』를, 루이스가 삶에서 겪은 고통의 문제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일곱 번째 만남은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 본 슬픔』을 직접 만나 보고 싶게끔 이끈다.

루이스의 책을 직접 읽고 싶어지는 두근거림이 루이스의 멋진 지성이나 유려한 필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책의 아름다움이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루이스의 책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루이스의 책들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들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루이스의 삶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이 있음을 믿게 되었는지,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루이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도 알려 준다. 루이스가 삶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한다. 독자와 루이스가 진짜 ‘점심 식사’에서 만나게 될 것처럼, 아끼는 후배에게 좋은 선배님을 소개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알려 준다. 그래서 독자들은 삶과 분리된 루이스의 저작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일상인으로서의 루이스를 만나게 된다. 루이스의 업

적은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독자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 즉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다. 해석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 (112쪽)’라는 사실을 이 책은 그대로 보여 준다. 루이스의 책들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앞서 루이스와 독자가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루이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초대장을 쓰고 있으니, 와서 만나 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러니 ‘루이스와 톨킨의 우정에 금이 간 것은 톨킨의 잘못이 컸다.’(60쪽)고 하거나 ‘루이스는 작품의 여러 대목에서 기독교를 지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217쪽)라고 하고서는 오해할 만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풀어 주는 부분이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곧 루이스를 만나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 주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다.

책을 읽으면서 각 만남을 마무리할 때마다 C.S. 루이스와 점심을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급기야는 루이스와 따로 만나도 좋을 것만 같았다. 간혹 만남이 급하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다음 만남과 매끄럽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만남이 주는 유익에 비해 너무 사소한 아쉬움이었다. 이 여덟 번의 만남으로 C.S. 루이스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니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수백 명이 있는 강의실에 앉아 강의를 듣던 느낌으로 만났던 C.S. 루이스의 책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읽고 싶어진다. 그만큼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의 초대는 정중하고 친절하다. 이제 초대에 응해야겠다. 루이스를 만나러 가야겠다. 



The God-Shaped Brain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이 책의 사례는 모두 실화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매순간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회로가 뚫린다. 새로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생겨나 신경세포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 연결부는 소멸하고, 휴면 중인 신경회로는 없어지고, 용도를 잃은 신경세포는 죽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념과 사고와 행동은 물론 식생활까지도 뇌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라면 뇌는 걸작품 중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이 놀라운 뇌의 신비를 이토록 명확하고 지혜롭게 풀어낸 책을 미처 본 적이 없다.”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의료원장, 의료선교협회장,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장

미국 소비자연구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정신과 의사,

티머시 R. 제닝스가 밝히는
뇌에 관한 진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CUP
02)745-7231 www.cupbooks.com



티머시 R.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신국번형 352면 | 값 14,000원





2015년 추계기독교인문아카데미(CHA) 기독교 인문학, 한국교회를 진단하다

- 일 시 : 2015년 10월 12일~11월 2일, 매주 월요일(18:30~20:30)
- 장 소 : 백석대학교 대학원(방배동) 진리동 702호(오시는 길: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 바로 앞)
- 신 청 : 한국기독교철학회 홈페이지(<http://www.chrisophy.org>) 60명 선착순 모집
- 문 의 : 조용호 박사(010-8446-6780, binahpapa@googlemail.com)
문영식 박사(010-9188-9528, sic1173@hanmail.net)

1 10월 12일 "역사 안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본 기독교의 위상"
강연 (월, 18:30~20:30) 강사: 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

2 10월 19일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강연 (월, 18:30~20:30) 강사: 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

3 10월 26일 "문화 상대주의와 기독교"
강연 (월, 18:30~20:30) 강사: 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

4 11월 2일 "기독교와 윤리"
강연 (월, 18:30~20:30) 강사: 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

2015년 하반기 세계관동역회 세미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쓰는 성도를 위한 대상별 세미나로 대상 맞춤형 세계관 기초 교육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적용 사례를 모아 진행합니다.

교회, 세계관으로 바로 세우기

목회자, 사역자, 신학생 대상

11월 세계관동역회 세미나

교회의 세계관 이론 및 적용,
공동체 현장의 고군분투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묻고 답하다!

세계관을 성경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계관을 어떻게 공동체 현장에서 적용할까?

교회와 공동체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아 함께 고민하며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질문과 답변, 함께 찾아봅시다.

일시: 11월 16일(월) 오후 1시~5시 (4시간)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합정역,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등록비: 1만원

신청: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문의: 02-754-8004, info@worldview.or.kr

[세미나 구성]

오후 1시~2:50 [강좌]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세계관_이승구 (합신대 조직신학 교수)

오후 3시~5시 [포럼 및 토론] 간단한 발제 이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

발제 1. 교육, 세계관 아카데미로 세우다_김정일 (삼일교회 목사, 세계관아카데미 담당)

발제 2. 교회를 새롭게, 리포밍처치_김신정 (주님의심자가교회 목사, <리포밍처치> 저자)

발제 3. 교회, 현장속으로_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담임목사)



<< QR코드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2월 세계관동역회 세미나

하루,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인, 교사, 학생 대상

세계관, 내 하루의 영성

일시: 12월 19일(토) 오후 1시~5시 (4시간)

장소: 백석예술대학 (방배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등록비: 3만원 (동역회 정회원의 경우 1만원 할인)

신청: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문의: 02-754-8004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임무는 철저히 세속화된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지성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과 학문활동을 이끌어 가며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국 교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문, 교육, 경제, 정치, 예술,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우주와 인류역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는 결코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따로 수행하기 어렵고 한 두 사람의 재능과 열심만으로 이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바쳐보려는 선한 마음들이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종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더욱 설득력 있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장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후원회원으로 가입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QR 코드로
바로 가입하러가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8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1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740,000		기타급여	539,500	
	일반회비	5,815,000		소계	4,139,500	
	기관후원금	4,350,000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30,000		사무실관리비	438,000	
	학술지원금	2,000,000		통신비	337,640	
	CTC후원금	300,000		우편료	23,890	
	임원수련회비	790,000		소모품비	109,940	
				비품	929,500	
				식비	311,800	
경상수입			경상비	복리후생비	622,220	
				퇴직연금	293,240	
				컴퓨터	26,400	
				회계용역비	110,000	
				임원수련회	2,164,600	
				기타	233,712	
				소계	6,150,942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308,900
					VIEW후원금	0
					학술지원금	2,000,000
		소계	2,308,900			
	15,635,000					
기타수입	예수금	362,78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이자	0		발송비	751,010	
	소계	362,780		소계	3,251,01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246,000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기타	3,500	
	소계	0		소계	249,5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심사료	0	
	학술지심사비	520,000		학회기타	100,000	
	소계	620,000		소계	100,000	
	16,617,780		16,199,852			
	36,327,094		36,745,022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8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소계	0		제작비	교정비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24,000		
		인쇄비	1,899,260		
		소계	3,283,26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299,080
	도서판매비	12,000		퇴직연금	144,838
	기타수입	646,920		회계용역비	110,000
	예수금	241,460		식비	39,000
	소계	3,400,380		소계	592,918
미디어아카데미			기타	세금	670,330
				기타	8,000
				소계	678,330
				어린이영상캠프	2,300,000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기타	0	
			소계	2,300,000	
	3,400,380		8,754,508		
	42,769,094		37,414,966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고은 김동찬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영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은사 유성욱 윤혜경 이수철 정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공승근 구성덕 구재현 권영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미정 김병민 김상욱 김성운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은경 김장영 김정식 김재우 김태환 김태원 김태윤 김현희 김현아 김현경 김해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변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설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유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이영훈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수연 임찬석 임형준 임호숙 장한일 전광학 전충국 정봉현 정한궁 조사무엘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베스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주성탁 황귀희 7천5백 김찬진 고상선 김나실 김성욱 김민민 김재우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옥 고세훈 고연경 고재호 꺾은이 꺾정민 구준희 권경호 권만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은 김광순 김규옥 김근배 김기웅 김기현 김남민 김남진 김대용 김동준 김동훈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병록 김보경 김봉래 김상범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민 김성진 김세원 김세준 김소라 김수진 김승호 김아람 김이름 김양화 김영숙 김영호 김유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철 김장모 김장일 김장준 김장진 김장호 김정화 김중국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민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호 김민인 김 현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재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문재환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근 박은영 박은주 박중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원 배이훈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석 백현숙 변영숙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하나 손현덕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구 신동민 신상형 신상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윤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희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원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은열 오자순 우현기 유건호 유규상 유규숙 유기남 유기성 유준주 유상원 유선탁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황 유창은 유혜우 유화원 유희진 윤명식 윤상찬 윤수자 윤찬석 이길두 이강 이경숙 이경직 이계실 이관철 이규현 이기서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덕영 이동훈 이영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근 이상기 이상우 이상수 이상현 이선복 이상수 이상엽 이사영 이연구 이연희 이요한 이윤환 이원배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성 이자숙 이자연 이자연 이자훈 이진영 이학성 이하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소현 임우진 임일택 임재택 임지연 임종택 임현영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영창 장옥경 장영훈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구 전종화 전찬양 정성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화원 재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민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 최영수 최윤영 최중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대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 언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경화 홍구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식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1만7천5백 심미성 2만 강대훈 강용관 김세광 김세원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변우진 빛과소금교회 석지원 송태상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수연 이연경 이인아 임수연 임 영 전장원 조창근 최현식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영옥 문석윤 문준호 박강국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오하나 우병훈 이예진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5천 정요안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박민식 서지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태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김지연 박상진 7만 최태연 8만 권경아 10만 김미영 김시호 김익원 박상은 송복호 송인규 양민영 윤민철 이기섭 전광호 12만 차정호 20만 양성만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130만 홍영식

계 10,285,000원

기관후원금

-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축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새인약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안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 30만 100주년기념교회
- 50만 사랑의교회
- 100만 엘비전
- 130만 주님의심자교회

계 5,3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범무법인, 흥성사, DCTV, 오후우스코리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제32회 기독교문학회] 발표논문 모집

기독교문연구회는 분야 별 기독교적 학문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을 주제로 하여 11월 7일(토)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신진학자 및 기독교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3,4,5층
- 주제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
- 패널 자연과학(유정철_경희대 교수), 인문(손화철_한동대 교수), 사회과학(김홍섭_인천대 교수), 공학(박문식_한남대 교수)
- 발표신청 및 논문모집 마감 2015. 9.30(수)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 당일 기초강연 시 정직하고 투명한 기독교학자들을 위한 기독교학문연구회 윤리규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의 정착과 복합학문 성격을 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마감기간을 지키시지 않는 경우, 발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학회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 ※ 등록비는 당일 접수이며 20,000원(프로시딩 제작 및 만찬포함)/학부 및 대학원생은 10,000원 입니다.
-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12기 모집]

1인 미디어 시대,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될 미디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향한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교육기간 10월 17일(토) ~ 2016년 1월 30일(토) 예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 접수마감 10월 2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온라인접수(cmca.or.kr)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후 선발
- 교육장소 베이직커뮤니티교회 (7호선 청담역 5분거리)
- 교육비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 등록금 350,000원
- 문의 홍정석 간사 Tel. 02-745-7237
E-mail. cmca@worldview.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학원생 모임] 10월 16일입니다!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 시간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십시오.

- 일시 10월 16일(금)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숙대입구역 10번출구)
- 문의 02-754-8004

[목회자를 위한 세계관 강좌] 11월 23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역자 및 목회자를 위한 세계관 강좌입니다. 세계관을 조직신학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실제 사역에서 적용하시는 분들을 모시어 듣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 교회 내 세계관 아카데미를 실시한 삼일교회 김정일 목사, 목회와 교회에 세계관을 적용한 <리포밍처치>의 저자인 주님의교회 김신정 목사, 세계관에 오랜 관심으로 다양한 세계관 서적을 직접 출간하며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1월 23일(월) 오후 1시~5시(4시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합정역 7번출구)
 - 수강료 10,000원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
- 12월에는 이어서 하루,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내 하루의 영성> 세계관 강좌가 실시됩니다.

10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6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2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시작(마감 10/2)	17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개강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MT(1박2일)
9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면접	24	
10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면접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25	
11		26	「월드뷰」 11월호 발행
12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제출마감	27	
13		28	
14		29	
15		30	
		31	

- 10/2(금)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마감
- 10/9(금)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면접
- 10/10(토)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면접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10/12(월)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제출마감
- 10/16(금)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 10/17(토)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개강
- 10/23(금)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MT(1박2일)
- 10/26(월) 월드뷰 11월호 발행

잊혀진 말들, 그리고

가람, 가시벗, 시나브로, 온새미로, 달보드레, 미르, 아라, 에멜무지로, 도담, 가온누리, 겨르로이, 고수련, 그린내, 꼬리별, 드레, 띠앗머리, 한울, 바오...

새삼 입으로 올려 보니 듣기 좋습니다.
잊혀진 우리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혀진 일, 사건도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야기하나 물으신다면, 변화 없어 이제껏 기다리기에 기억해야 한다 답하겠습니다.
사건이라 운운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바뀐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이벤트에 그친 건 아닌지,
지난 솔한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나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경각하고 반성하고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무엇을 했나 묻겠습니다.
진정 전복된 것이 무엇인가요.


전복된 건 우리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누구 탓 이전에 잊혀진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입니다.
지난 시간, 당신의 자리에서 이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의미도 있습니다.

약속, 헌신, 성실, 영원, 사랑, 인애, 정직, 아름다움, 인격, 존중이 실종된 시대.
넘치는 개성과 잠깐의 섬과 감정, 순간의 울부짖음과 힐링, 섹시, 인권은 있으나
사람됨과 사모함과 지키려 함과 인내함과 끝까지 신실하게 행함, 선과 덕과 송고한 아름다움,
노력이란 것이 부수적이다 못해 사라진 시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잊힐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잊혀 가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사람다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이건, 세상 속이건
별개의 다른 의미와 가치, 윤리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을 닮은 사람(창 1)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참다움과 사람다움이 함께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에는 참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힌 말이라고 사람됨마저 잊혀지면 안되겠습니다. 

*'잊혀지다'의 바른 표현은 '잊히다'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이중피동의 표현이나 어감의 깊이 차이로 사용했습니다.



Intelligent
Intuitive
Ingeniously Practical

양심을 다는 정밀계량
오하우스

Ohaus Ranger®7000

- 최대용량 3 kg ~ 35 kg
- 정밀도 0.00005 ~ 0.0005 kg
- 안정화 시간 1초 및 상거래 인증
- 내구성 보장의 IP54 케이스 및 알루미늄 본체
- 견고한 모듈식 설계



Ohaus Adventurer™-AX

- 최대용량 120 g ~ 8,200 g
- 정밀도 0.0001 ~ 0.1 g
-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손쉬운 사용
- 알면 USB포트 및 공간 절약형 방풍문
- 안정성, 정확성 및 빠른 작동



휴대용pH미터 및 펜미터



Ohaus ST5000

- 0.1/0.01/0.001pH 분해능
- 1000개 메모리
- 100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메모리
- 3포인트 모드
- LCD 터치-스크린

Ohaus 원심분리기 Frontier

- 6500~ 15000 RPM까지의 다양한 모델
- 8 x 1.5/2.0 ml ~ 44 x 1.5/2.0 ml 성능
- 10분에 4°C까지 쿨링되는 강력 냉방시스템
- 탁월한 진동 흡수력
- LCD 터치-스크린 제어 패널
- Made in Germany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824호

Tel.(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m>



생각이 안 나서

1.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는 우유와 포크레인 먹어라.” (콘플레이크)
2.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개발해 주세요.” (재발급)
3.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야채 인간이 되었다지 뭐야!” (식물인간)
4. 회갑 잔치를 한 노인에게 “육갑 잔치 잘 치렀습니까?” (육순, 회갑)
5. 친구와 전화하면서 주머니를 더듬다
“야 내 전화기가 없어졌어. 다음에 통화하자!” 📞

